10.15686/fkl.2018..45.508

허수경 시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양상

이은영*

차례

1. 서론
2. 물화된 현실에 대한 풍자적 알레고리
3. 동물로 형상화한 자기 정체성의 알레고리
4. 시대를 환기시키는 여성 호명의 알레고리
5. 죽음과 폐허의 알레고리
6. 결론

〈국문초록〉

한국 현대 시문학사에서 허수경은 1990년대, 2000년대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녀는 현실적 맥락에서 시대의 아픔을 담아내는데,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드러내는 파편화된 현실을 온전히 내면화하고 있다. 허수경의 시에 알레고리의 함의를 가진 여러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허수경은 사유 속에 자리하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시대정신을 표출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본고는 허수경 시에서 작품 바깥의 현실을 시에 도입하는 알레고리의 표상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허수경 시에서 알레고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양상을 논의하였다. 허수경의 시에 있어 물화된 현실에 대한 풍자적 알레고리는 중요하다. 물신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의 현실을 풍자하고 환기하는 알레고리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는 현실의 삶을 효과적으로 형상화 한다. 또한 동물의 세계를 대상화 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심연을 품어냄으로써 숨겨진 이면에 대한 회복과 귀환에 시선이 놓이게 한다. 허수경의 시에서 알레고리는 또 한 편으로는 여성을 호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대의 노곤한 삶이 처절하게 스며들어 있는 여성은 남성중심의 은폐된 권력 구조를 알레고리화 하기도 하고 물질문명이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체로 자리할 수 없는 여성들의 모습을 핍진하게 그려내는 알레고리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허수경의 시에서 알레고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로 작용하기도 한다. 알레고리적 시선으로 현실의 무수한 관계들을 시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것이다. 허수경은 흔적으로 남은 기억들을 죽음이나 폐허의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간다. 알레고리는 세계의 파편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조립하여 현재를 조명하는 것인데, 허수경의 시는 죽음과 폐허의 이미지로 현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 허수경, 알레고리, 풍자, 동물 형상화, 여성, 죽음, 폐허

1. 서론

허수경(1964~2018)은 1987년 『실천문학』을 통해 문단에 등단하였다. 등단작에서 보여준 뛰어나게 무르익은 시언어는 당대 시단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허수경의 시는 무엇보다 타인의 상처를 감싸 안아 그 비극적인 슬픔을 함께 느끼는 시를 구사한다. 그렇기에 서정적인 언어 속에 사랑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송기원은 이를 “허수경의 시가 갖는, 사람을 사로잡는 괴물 같은 힘을 말하고 싶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는 것일까. 단언하건데 허수경의 괴물 같은 힘은 사랑에서 연유한 것이리라.”[1]라고 말하고 있다. 고통과 몸부림으로 사랑을 획득하여 넉넉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허수경의 시는 시인 허수경의 시의 자리가 어디에 놓

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권의 시집[2]을 상재하고 소설 『모래도시』(1996), 『아틀란티스야, 잘 가』(2011), 『박하』(2011)와 산문집 『길모퉁이의 중국식당』(2003), 『모래도시를 찾아서』(2005), 『너 없이 걸었다』(2015) 등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전방위적인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적인 구체성과 사회 역사적 상상력, 문학적 언어를 통한 새로운 감각의 깊이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허수경 시의 바탕은 현실주의에 가깝다. 그녀의 시는 현실적 맥락 안에서 전반적으로 우울과 슬픔의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허수경의 시가 당시의 여타 시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우울과 슬픔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 서정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그녀의 시는 현실적 맥락 안에서 자기 성찰과 타자 인식의 통합성을 역사적 인식과 심미적 상상력으로 드러낸다. 1980년대 이후의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드러내는 비정형적 현실과 파편화된 일상은 그녀의 시에서 내면화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허수경에 관한 연구는 여성주체로서의 자기인식에 주목하는 페미니즘적 연구와 절망에 대한 공감각을 형상화하는 서정시로서의 지평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허수경의 시를 페미니즘적으로 보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용희는 1990년대의 여성시의 유형을 구축하는 글에서 김혜순의 시를 시와 신경증의 언어로, 허수경의 시를 여성성의 파동으로 파악한다. 허수경의 시는 세상에 나간 숱한 남정

1) 송기원, 「저주와 은총의 사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발문, 실천문학사, 1988, 134쪽.

2) 허수경(1964~2018)은 1987년 『실천문학』을 통해 시단에 등단하여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1988, 실천문학사), 『혼자가는 먼 집』(1992, 문학과 지성사),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2001, 창작과비평사),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2005, 문학과 지성사),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2011, 문학동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2016, 문학과 지성사)를 상재하였다. 이 논문은 위의 시집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네들이 돌아와 피로를 풀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을 위무해 주는 모성적 여성이라는 것이다.[3] 엄경희는 여성시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에코페미니즘의 특성을 분석하는 글에서 허수경의 시가 여성과 자연을 동일성으로 인식하여 여성과 자연이 폭력적 세계 속에서 억압되어 왔음을 보여준다고 논의한다.[4] 이혜원은 허수경의 시에서 여성들의 고난은 상황과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로 강한 공감을 일으킨다고 논의한다. 폭력적인 역사 속에서 지속된 여성 차별의 구체적인 실상을 서사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이다.[5] 또한 이혜원은 허수경 시의 여성주체가 희생자로 머물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을 지속하였다고 말한다. 시인이 독일행을 선택한 이후에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나라, 과거와 현재와 시간들을 포함하여 모든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는 여성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6] 이와 함께 이경수는 허수경의 1980년대 시에 나타나는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가 연대의 의미를 발견하는 애도의 정동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7]

허수경을 1990년대, 2000년대의 서정성을 성취한 시인으로 보는 견해로 이광호는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에 대한 평론에서 허수경이 9년만에 출간한 세 번째 시집이 미학화된 기억을 통해 실존 속의 오래된 시간을 사유하는 계기[8]라고 보았다. 김진수는 1990년대 이후의 서정시의 자리를 살펴보는 글에서 허수경의 시가 상처입고 고통받은 타자들에 대한 비극적인 유대감의 정서를 드러낸다[9]고 논의한다. 김영희는 시인의

3) 김용희, 「1990년대 여성시의 두 경향」, 『논문집』, 평택대학교, 2002, 177-188쪽.
4) 엄경희, 「상처받은 '가이아'의 복귀- 여성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한국근대문학연구』 4(1), 2003, 336-361쪽.
5) 이혜원,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여성문학연구』 41, 2017, 321-353쪽.
6) 이혜원, 「'나'의 자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 『서정시학』 27(4), 2017, 11, 12-28쪽.
7)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 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2018, 37-78쪽.
8) 이광호, 「그녀의 시는 오래되었으나-허수경의 오래된 편지」, 『문학과 사회』14(2), 2001,6, 796-806쪽.
9) 김진수, 「서정시의 지평과 새로운 모색」, 『문학과 사회』 14(4), 문학과 지성사, 2001,11, 1531-1546쪽.

역사적이고 윤리적인 감각이 시대의 아픔을 몸의 아픔으로 경험하게 한다고 본다. 그는 김수영의 아픈 몸이 도종환, 허수경, 최승자에게 유전되고 있다고 보면서, 허수경의 시는 절망에 대한 공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10] 또한 이경수는 허수경의 시에 나타나는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태도의 연원을 살펴본다. 이경수는 허수경의 시를 두고 이 땅의 민중에게 가해진 폭력을 사랑의 힘으로 품어 안는 힘을 보여주기에 특별하다고 논의한다. 허수경의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향과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전쟁과 폭력에 맞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11] 이은영은 고정희와 허수경의 1980년대 시를 중심으로, 두 시인의 시가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사회현실에서 사유의 방식까지 형식화되는 자본주의 주체성의 지배적 양상을 드러낸다고 보았다.[12]

이와 같은 허수경의 시에 대한 연구에서 한 가지 발견되는 지점은 허수경의 시가 드러내는 현실 비판 의식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시적 도구로서의 수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허수경의 시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의 제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허수경 시의 수사적인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 시 텍스트에 원용된 수사적 전략의 문제가 허수경의 시세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것이 특히 알레고리로 나타나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알레고리는 수사적 장치이면서 그 장치의 효과가 일으키는 의미에 대응하는 개념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알레고리는 형식적으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1인 수사법이

10) 김영희, 「사랑의 역사는 치욕으로 오고- 도종환, 허수경, 최승자의 시와 '아픈 몸'의 윤리」, 『창작과 비평』 40(1), 2012, 3, 326-346쪽.
11) 이경수, 「한사코 달아나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사랑의 노래-허수경의 시」, 『사건들 2』, 《계간 파란》 8, 2017 겨울, 230-260쪽.
12) 이은영, 「1980년대 시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재현과 부정성」, 『문예비평연구』 59, 2018, 205-238쪽.

라고 정의된다.[13] 알레고리는 어휘 하나만으로 비유가 형성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그것이 표면적으로 완결되어 있어야 하며, 참과 거짓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진리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어떤 진리를 나타낸다.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완결된 담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이면에 따로 숨어있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알레고리는 우화(寓話), 우언(寓言), 우의(寓意), 풍유(諷諭) 등으로 번역되는 데,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로 구분하여 1차적 의미를 통해 인물, 행위, 배경 등 통상적인 요소를 표면에 형상화하고 그 요소의 배면에 정신적, 도덕적, 역사적 의미를 2차적 의미로 전개시키는 수사적 방식이다.[14] 그러한 알레고리의 개념은 현실비판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15] 알레고리는 발터 벤야민에 의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로, 현실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재발견된다.[16] 발터 벤야민은『독일 비애극의 원천』에서 상징과 알레고리를 구분한다. 벤야민은 알레고리가 상징의 초월적인 보편성과는 달리 현실의 균열지점들을 몽타주하면서 이를 통해 역사와 현실의 총체성을 현재적으로 재구성하는 사유의 방법론으로서 현실의 의미작용양상을 철저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사유와 글쓰기의 방법론이라 주장한다.[17]

허수경의 시에는 알레고리의 특징이 나타난다. 허수경의 시가 보여주는 알레고리는 단일한 장르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는다. 역으로 단일한 장르의 이념과 의미에 대해 복수의 의미를 만들어[18] 새로운 감각의 깊이를 획득한다.

본고에서는 허수경의 시 전반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특징과 유형을 살

13)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203쪽.
14) 노용무, 「현대시의 문학적 체험과 알레고리」, 『국어문학』 39, 2004, 81쪽.
15) 박현수, 『시론』, 예옥, 2011, 367-370쪽.
16) 정끝별, 「현대시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특징과 유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 2003, 308쪽.
17) 정의진,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론의 역사 시학적 함의」, 『비평문학』 41, 2011, 387쪽.
18) 김진수, 앞의 책. 1533쪽.

펴보고자 한다. 알레고리를 수사적으로 원용한 시를 중심으로 허수경의 시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시인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허수경 시가 가지고 있는 시적 언어의 특징의 한 부분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2. 물화된 현실에 대한 풍자적 알레고리

허수경의 시가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는 하나의 중심축은 시대적 착취와 일상의 비루함이 드러나는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기쁨도 가질 수 없는 시적 화자들이 등장하는 허수경의 시에는 화자가 자리한 시대의 폭력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여기서 시인은 절망과 결핍의 시대를 바라보는 도구로 알레고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허수경의 시에 쓰인 알레고리는 일 대 일로 대응되는 전통적인 수사학적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 알레고리의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망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 여게가 친정인가 저승인가 괴춤 전대 털리고 은비녀도 빼앗기고 댓가지로 머리 쪽지고 막걸리 담배잎 쩔어 미친 달빛 눈꼬리에 돋아 허연 소곰발머리에 이운 곰보 고모가 삭정이 가죽만 남은 가슴 풀어헤치며 6·25 이후 빼앗길 것 몽땅 빼앗긴 친정에 왔는데 기제사때 맞춰 왔는데 쑥대밭 쇠뜨기 도곤 무성한 만단정회여 고모는 어느 녘에서 이다지도 온전히 빼앗겼을거나 빼앗김만이 넉넉한 빼앗김만이 남아 귀신 보전하기 좋은 우리집이여.
>
> -「그믐밤」,『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위의 시는 궁핍의 고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시는 시적 대상인 “고모”가 친정을 저승과 동일시하며 시작한다. 고모가 친정인가 저승인가 중

얼거리는 것은 고모가 대면한 구체적 현실을 드러낸다. 이 시의 공간인 “친정”은 “저승”이라는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이미 폐허가 되어버려 “쑥대밭 쇠뜨기도곤 무성한” 붕괴된 곳이다.

그렇기에 고모의 삶을 드러내는 이 시는 좌절과 고통을 배경으로 가진다. “빼앗김만이” 가득한 고모의 삶은 처참하고 비극적이다. 그녀가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친정에 온 원인을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돌아온 것은 분명하다. “전대”도 빼앗기고 자신의 쪽진 머리카락에 꽂고 있던 “은비녀”도 빼앗긴 그녀의 처지는 외적인 모습으로 재현된다. 고모의 모습은 머리는 “댓가지”로 쪽지고 눈에는 “달빛”이 비치고, 소금기 가득하여 허옇게 보이는 머리를 지닌 채, 야위어 “가죽만 남”아 “가슴 풀어헤”쳐져 있다. 이러한 고모에 대한 시각적인 중심 이미지들은 연쇄적으로 제시되어 고모가 친정에 도착한 날의 밤 풍경과 함께 시적 대상인 고모의 처지를 대응한다. 이러한 시적 대상에 대한 이미지의 포착은 정서를 객관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모의 감정에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 주체와 현실의 관계를 형상화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의 화자인 고모가 자신의 삶이 붕괴되고 찾아온 친정은 저승과도 같다. “친정”의 붕괴가 저승으로 비유되는 것은 처참한 현실을 완벽하게 포착해 낸다.

또한 시의 대상인 고모의 모습은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기능한다. 그녀는 희망 없는 삶 가운데에서 6·25때 빼앗길 것을 다 빼앗긴 친정으로 향한다. 그녀의 발길은 비속한 현실 속에서도 현실적인 삶의 터전이자 자신의 삶의 원형에 대한 복원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삶의 근원인 친정의 상실은 좌절을 심화시킨다. “넉넉한 빼앗김 만이 남아 귀신 보전하기 좋은 우리집이여”라는 화자의 말은 끊임없는 좌절 끝에 남은 희망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 악마적 현실을 드러낸다. 그것은 또한 한국전쟁 이후 각박하고 지난한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당대의 민중들에 대한 알레고리로서의 의미를 획득한다.

그해 겨울 나는
이 도시의 가장 큰 박물관에 있는
가장 작은 지하방에 있었다

1

고향에서 강제로 이주된 늙은 신들은 지상 전시실에서 눈동자 없는 눈으로 흉곽을 들여다보고 있다 세계는 아직 점자가 아니고 눈동자 없는 눈으로 살펴야 할 세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가자, 가자, 늙은 신들은 발목 없는 말을 재촉한다 지상전시실 입장료는 4마르크이다

2

러시아에서 온 아낙들이 박물관 앞에서 붉은 별이 선명한 군용 모자를 판다 그리스 정교의 성모가 작은 조갑지 같은 박분통 안에 들어 있다 그들의 사제 중 하나가 성모를 위해 착한 시간을 바쳤다 5마르크에 그 시간을 살 수 있다

3

덜커덩, 전차가 지나간다
후루룩 국수를 먹는다
월남에서 온 키작은 남자가 노랗게 볶은 국수를 판다 고기를 넣으면 4마르크, 고기를 넣지 않으면 3마르크이다

4

도시전철 안에서 전쟁을 피해온 가수는 노래한다 그의 입 안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탱크 안에는 목 잘린 태아가 웅크리고 있다 1마르크에 태아를 구경할 수 있다

5

그의 얼굴은 희다 입술은 붉다 분주한 아침길 맥주를 들고 버스정류장에 앉아 그는 멀거니 세상을 들여다본다 바쁜 세상의 아침을 축복할 수 있을까, 맥주가 있는 한 우리는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1마르크 20페니히이다

(…)

8

기억 교회 옆에 극장이 있다 해질 무렵 영화는 상연된다
눈시울 붉은 하늘 가만 눈을 뜬다
그렁그렁 종소리가 잠시 이 도시의 허공에 맺힌다

9

미라들이 박물관 지하에 있다 미라 옆방에는 거대한 항아리를 모아둔 방이 있다 그 방 위 지상층에는 유물을 수리하는 실험실이 있다 지하복도에서서 기침을 하면 개짖는 소리 같은 기침소리가 목으로 다시 기어들어온다 지하복도에서 빵을 먹는다 80페니히, 건포도빵이다

-「베를린에서 전태일을 보았다」 중에서,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위의 시는 허수경이 독일로 이주한 이후 출간한 첫 시집이며 두 번째

시집 이후 거의 10여년 만인 2001년 출간한 세 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부터 허수경은 고향과 모국을 떠난 디아스포라 시인으로서의 감각을 본격적으로 보여준다.[19] 시인 스스로도 "몸의 눈을 닫고 마음의 눈으로 나는 다양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었다."[20]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허수경은 폭력과 상처로 얼룩인 세계의 사람들과 전태일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을 표면구조와 내면구조로 알레고리화 한다. 인용시는 현실 세계의 재현과 허구 상황의 경계를 오간다. 박물관의 전시물들을 의인화 하는 것은 박물관을 둘러싼 풍경들을 바라보게 한다. 동시에 박물관 주변의 시적 대상들을 아홉 부분으로 나누어 자의적이고 불연속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시의 의미적인 연결성을 단절시킨다. 또한 아홉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시는 허구적 거리를 두는 우회적 방법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자신이 최근에 직면한 일들을 사례 보고 하는 형식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 결과 이 시는 현실 순응의 삶 속에 들어있는 단절과 부조화의 순간들을 구사함으로써 저항의 효과를 주기도 한다. 화자는 "늙은 신들"이 "재촉하여" "살펴야 할 세계"를 환영과 실재의 형태를 오가며 진술한다. 늙은 신들이 들여다보는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누대로부터 첩첩히 쌓인 "유물"과도 같은 곳이다. "러시아에서 온 아낙들", "월남에서 온 키작은 남자", "전쟁을 피해온 가수", "버스정류장에 앉아 세상을 들여다 보는 그"는 모두 시간을 통한 수많은 생애의 집합체인 것이다. 이는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그때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과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듯이 시적 대상들의 삶의 현장은 존재와 시간이 중첩되고 시공간과 개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의 현장임을 알레고리화 한다. 이처럼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시간을 기억의 재현에 그치게 하지 않고 그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힘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었다.

---

19) 이경수, 「한사코 달아나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사랑의 노래-허수경의 시」, 앞의 책, 238쪽.

20) 허수경, 「시인의 말」,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앞의 책, 109쪽.

알레고리는 시대의 정신사적 내용을 매개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지 않고 양자 사이의 매개 방식을 통한 변증법적인 면모를 보인다.[21] 알레고리란 파편화된 세계에서 그것을 넘어서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하는 치유의 몸짓이기에 허수경에게 있어서 알레고리는 실재에 대한 반응태로 텍스트에 들어있는 것이면서 현대의 사물화와 분리에 맞서는 변증법적 사고[22]로 현대인의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

> 숨은 말 속에 불 있는가, 저 조각상의 근육 속에 힘은 있는가, 손가락 속에 아직도 살인을 명령할 욕망은 있는가, 조각상이 넘어지면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지면 죽는가, ebay 경매에 나온 어느 독재자 조각상의 다리 한쪽, 저런 종류의 죽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
> -「무너진 조각상」,『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위의 인용시는 시적 대상을 "조각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풍자적 거리를 확보한다. 화자가 진술하는 조각상의 모습은 독재자 조각상이 드러내는 현재의 표면과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러한 장치에 의해 독재자 조각상은 화자의 시선 안에서 허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오간다.

풍자의 대상인 독재자 조각상은 우리 시대의 독재자들을 환기한다. 이들은 "근육 속에 힘은 있는가", "살인을 명령할 욕망은 있는가", "떨어지면 산산히 부서져 죽는가"로 풍자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부도덕성과 정치적 억압을 일으켰던 독재자의 조각상이 "ebay" 경매에 오른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써 권력의 허위를 비판한다. 그렇기에 이 시는 현실을 우회적으

21) 김길웅,「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을 중심으로」,『현대비평과 이론』, 1997, 가을 겨울호, 202쪽.
22) 이경덕,「Fredric Jameson의 역사주의적 상상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23쪽.

로 표현하여 역사 현실과 마주하는 알레고리로서 기능한다.

3. 동물로 형상화한 자기 정체성의 알레고리

허수경의 시에는 상실되고 파편화된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고립된 현실의 단편들이나 허구적 단편들을 구성한 시들이 있다. 동물들은 한 세계를 지칭하면서 동시에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준다. 삶의 형상화를 이루는데 있어 동물들은 세계의 숨겨진 이면을 바라보게 하여 알레고리적 기능을 강화한다.

> 육지의 불빛이 꺼져가는 아궁이 쑥냄새 같은 저녁이었고 모래 구멍엔 낙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만의 다리로 머리를 감추고 또한 머리와 다리가 무슨 兩性처럼 엉기면서 먼 저녁의 구멍을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그 구멍마다 저 또한 어둠이겠지만 엉겨붙어 살아 남는 것들이여 멀리 무덤 같은 인가에도 엉겨붙은 저녁과 밤과 새벽이 있을 거구요 이리 어둑하게 서 있는 나는 저 미역 저 파래 저 엉겨붙는 그리움으로 육지를 내치고 싶었습니다 진저리치는 저 파도 저 바위 저 굴딱지처럼 엉겨붙어 엉겨붙어,
>
> – 「남해섬에서 여러 날 밤」, 『혼자 가는 먼집』

시에 동물을 등장시켜 형상화하는 것은 사실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 거리를 통해 사실과의 거리를 두는 우회적 방법이다. 인용시의 화자가 바라보는 낙지의 집인 모래구멍과 화자인 나는 풍경의 일부가 되어 그 자리에 자신을 재구성한다. “낙지”는 “엉겨붙어 살아남”아 “먼 구멍”을 “지탱하”는 존재이다. 낙지의 이미지는 “인가”의 이미지와 연쇄되어 현실 속의 엉겨붙은 저녁과 밤과 새벽과 연쇄된다. 그것은 존재들의 삶의 궤적이고 세계의 운동 원리이다. 타자들과의 결속체인 존재의 본질을 자연의 풍경 속에서 포착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

화자는 풍경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그것의 궤적을 읽어가고 풍경 또한 화자의 삶의 시간을 읽어나간다. 그렇게 낙지의 모래구멍과 인가는 “엉겨 붙는 그리움”으로 “엉겨 붙어” 있는 “저 미역 저 파래”, “저 파도 저 바위 저 굴딱지”로 서로가 서로를 반영한다. 그렇게 이 시는 내면화된 타자들의 결속체인 자신이 지금 현재에 이 풍경의 역사 속에 운동하며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삶의 현실에 탄식처럼 “진저리치”면서도 삶의 내면의 서사를 읽어내는 것이다. 현실의 존재 원리와 동물 세계, 자연물의 세계 현상을 등치시키는 표현으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세계와 존재의 현상을 보여주는 알레고리로 읽힌다.

> 산 숲 구덩이에 썩고 있는 물속에서 걸어나온 말 한 마리, 빛 속을 걸어다니고 싶었던 말 한 마리 저녁이면 고요히 제 구유로 밥 먹으러 오고 싶었던 말 한 마리 빛을 퉁기며 거품침 속으로 공기를 우물거리고 싶었던 말 한 마리
>
> 말 한 마리 산 숲을 빠져나와 벌판을 지난다 길 위에 꽃지는데 초록 돋아드는 햇살 설렁이는데 눈 안에는 들판 들판에는 그렇게 많은 싸리꽃 일렁이는 시간을 빛 속에 나누어주고 있는 싸리꽃 말의 눈 안에서 싸리꽃은 얼마나 많은 씨앗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었던가
>
> 썩고 있는 물이 제 구유인 말 한 마리 들판을 지나 자동차 지나다니는 길로 들어서는 말 한 마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오는 말 한 마리 지붕을 바라보다가 지붕선을 바라보다가 지치는 말 한 마리
>
> 말을 읽는 말 한 마리 말을 건너가는 말 한 마리 구름 밑을 지나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말 한 마리 지친 말 한 마리 뜨거운 육체만이 이끌고 갈

수 있는 말 한 마리 무너지는 육체를 떠밀고 갈 수 없는 말 한 마리 다시 뜨
거워져야만 동네를 빠져나가 길을 지나 들판을 지나 산 숲으로 갈 수 있는
말 한 마리 다시 썩고 있는 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한 마리

-「말 한 마리」,『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위의 시는 말이 있는 하나의 풍경 안에 네 개의 풍경이 공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각 연의 마지막에 "~는 말 한 마리"가 네 번 반복되면서 각각의 상황이 진술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상황이 "~는 말 한 마리"라는 같은 구문에 종속되어 각기 다른 풍경이 동시에 현존하는 듯한 모습을 최대한 살려내고 있다.

"말 한 마리"가 "산 숲 구덩이에 썩고 있는 물속에서 걸어나"오는 것은 "다시 썩고 있는 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로 귀결된다. "빛 속을 걷고 싶었던" 말 한 마리는 "빛을 퉁기며 거품침 속으로 공기를 우물거"리려면 "뜨거운 육체"로 "다시 뜨거워져야만"한다. 그렇게 뜨거운 육체를 갖고 말이 하고 싶었던 일은 일상의 도처에서 삶의 배경들을 만나는 일이다.

"고요히 제 구유로 밥 먹으러 오고 싶었던 말 한 마리"는 "산 숲을 빠져나와 벌판을 지나" "햇살 일렁이는" "들판"에서 "많은 씨앗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는 "싸리꽃"을 만날 수도 있으며, "들판을 지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와 "지붕선을 바라보다가 지"칠 수도 있다. 화자는 문명의 폭력적인 가속도가 일으킨 현실세계에서 문명으로 인해 삶을 이루는 자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말 한 마리를 통해 현재형으로 생각한다. 말 한 마리는 "자동차", "지붕", "말"로 이어지는 문명의 질서에서 자연의 질서로 귀환하고자 한다. 썩고 있는 물에서 뜨거워진 육체로 산 숲으로 가고자 하는 말은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의 세계를 보여주는 알레고리인 것이다. 허수경은 말 한 마리가 속해 있는 현실세계와 이 세계를 이루지만 이 세계 너머의 것이 되어버린 말 한 마리가 바라보는 자연의 질서를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이

세계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들의 숨겨진 이면에 대한 회복과 귀환에 시선을 쏠리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알레고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허수경의 시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심연을 품은 현실세계를 드러낸다. 삶의 외부보다는 내부를 향해 있는 동물들은 “뿌리뽑힌 나무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세계에서 “집으로” “가”(「누런 달 아래 있는 놀이터」)고자 하는 회복과 귀환의 알레고리로 작용한다.

4. 시대를 환기시키는 여성 호명의 알레고리

허수경의 시에는 여성이 호명된다. 이 여성은 시대의 노곤한 삶이 처절하게 녹아 있는 여성이다. 시인은 훼손되고 오염된 공간에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삶을 알레고리화 하여 재현한다.

도시 물질 문명에서 울고 있는 여자
울고 맞고 괴로운 여자
모든 것을 보듬는 모성의 여자

헤이, 아가씨, 오늘 나랑 같이 갈까
고향 오래비처럼 안아줄게 꽃 한 송이
사줄까 밥 한끼 먹여줄까 겁내지 마
그리고 제발 울지 마

기차가 지나가는 어디쯤 방을 잡을까
이틀쯤 잠잘 곳있었음……

– 「도시의 등불」 중에서, 『혼자가는 먼 집』

이봐요 아가씨
당신은 이 도시에서 몸부터 먼저 헐릴 거야 끝내 마음은 가지고 다닐 수 없이 무거워지겠지 벌써 저녁이 끔찍하다
아가씨
무표정과 동무할 수 있는 건 도시의 등불밖엔 없어
아가씨 빨리 갈 길을 가요 얼마나 수많은 끔찍한 저녁이 삭신에 걸터 앉아야 무표정하게 나를 스쳐갈 수 있을지 때로 밥이 아프거든 능선의 고향을 생각해요 끝내 갈 수 없는 곳일 터이므로

이 건물의 주인은 조랑말도 지나갈 수 없는 곳에다 포크레인을 끌어들일게 뭐람 저 가질 수 없는 표정을 한 아가씨
저 아가씨라도 자본이 소유해낼 수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으련만 빌어먹을, 무표정을 새로 시작하려는 것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받고 또 받고 있는 걸까

-「표정 1」 중에서, 『혼자가는 먼 집』

여편네는 자꾸 우네
파를 썰며 눈물을 훔치며
이봐요 아가씨, 국물을 먹을 땐 눈물을 삼키는 게 아냐
뼈가 시린가, 이렇게 뼈국물을 우리면 퍽퍽한 생애가 또한 뽀얗게 흐려질 터이므로

도시 한켠에 허깨비 같은 김에 둘러싸여 그러나 보낼 것 같은 표정만 끝내 떠나보낼 수 없는 표정만 짐승 울음처럼 웅크리는 법인게지

-「표정 2」 중에서, 『혼자가는 먼 집』

인용된 시는 모두 허수경의 두 번째 시집인『혼자 가는 먼 집』에 상재된 시들이다. 인용된 시들에 등장하는 “아가씨”는 우선 시인의 분신으로 읽힌다. 두 번째 시집을 냈던 시절의 허수경의 삶에 대해서 평론가 이경수는 이렇게 말한다. “진주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진주에서 보낸 허수경 시인은 첫 시집을 내고 서울로 올라와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돌본다. 두 번째 시집은 메마르고 강퍅했던 허수경의 서울살이를 짐작하게 하듯 메마르고 아픈 도시의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다.”[23] 물론 “아가씨”라는 시적 대상은 각각의 시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아 그것을 행하지만 허구적 인물이면서도 시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시들은 허수경 시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도시의 등불」라는 시에서 “아가씨”는 직접적으로 여성의 삶을 말한다. “아가씨”를 부르는 화자는 “고향 오래비”라 지칭하는 남성이다. 이 남성화자는 “같이갈까”, “안아줄게”, “사줄까”, “먹여줄까”라는 말로 남성 중심적인 사유체계를 드러낸다. 일반적인 남성의 발화를 옮겨놓은 듯한 이 시는 사회 구조에 편재해 있는 은폐된 권력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주의의 폭력체계를 알레고리화 한다.

또한「표정 1」과「표정 2」는 제목에서 보이듯 현실적인 슬픔의 짐을 지고 있는 “아가씨”의 삶의 표정들을 “아가씨”를 호명하여 그려낸다. 이 시들은 시대의 노곤한 삶의 표정들이 처절하게 드러나 있다.「표정 1」에서 화자는 아가씨가 살아갈 도시의 삶을 말한다. “능선의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아가씨가 살아갈 세속화된 도시의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몸부터 먼저 헐려” “끝내 마음은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도시의 삶은 삶의 진정성이 훼손되어 인간의 가치나 의미를 잃게 한다. 시인은 “무표정”으로 대면해야 살아갈 수 있는 “끔찍한” “도시”의 현실을 보여준다. “수많은 끔찍한 저녁” 속에서 “빨리 갈 길을 가”야만 도시에서의 삶은 이

23) 이경수, 앞의 책, 233쪽.

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자는 "저 아가씨라도 자본이 소유해낼 수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위의 시들에서 호명된 "아가씨"는 울고 있다. 인용시 「표정 1」에서 화자는 "아가씨"를 호명하며 무표정함에 깃들어진 삶에 대해 안타까운 슬픔을 표출하고 있다. 「도시의 등불」과 「표정 2」에서 호명된 "아가씨"는 짙은 슬픔을 밖으로 표출한다. 그 짙은 슬픔의 울음에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여성을 향한 시인의 슬픔이 깃들여 있다. 하지만 시인은 화자를 통해 아가씨를 호명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울음이 유발되는 도시에서의 삶의 구석구석을 더듬어 간다. 시인은 "아가씨"와 동일시되면서도 울음을 일으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에 시적 대상인 "아가씨"와의 거리를 확보해 "아가씨"의 삶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뼈가 시린" "퍽퍽한 생애"를 울음을 삼키며 견뎌야 하는 아가씨의 현실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집단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호명된 아가씨의 삶은 자본주의의 물신 사회에 대한 속물성과 타락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보여준다. 화자에 의해 호명되는 "아가씨"는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와 자본주의의 실상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도시의 삶에 대한 모순을 제기한다. 허수경의 시에서 호명되는 여성은 한 시대의 주체들이 겪은 원체험을 알레고리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에 "아가씨" 등의 여성의 호칭을 호명하는 것은 약간의 익명성과 함께 복수성을 부여하여 알레고리적 기능을 강화한다.

5. 죽음과 폐허의 알레고리

허수경 시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죽음과 폐허의 이미지이다. 세계의 반복 회귀의 모습을 시 속에서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근동고고학을 공부하고 발굴의 현장에서의 체험을 작품화한 시인[24]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적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세계의 운명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파문을 시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죽음이나 폐허와 관계되어 지속적인 탐색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관점을 드러내는 일련의 시들은 허수경 시의 특성을 규정하는 일부를 이룬다. 알레고리는 현실의 균열지점을 몽타주하면서 의미 없음의 의미라는 모순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다. 그 경험은 고통과 우울을 통해 현실의 진면목, 다시 말해 삶에 결여되고 부재한 것에 다가가는 계기가 된다.[25] 개념과 형상이 일치하는 상징에 비해 알레고리는 사물세계와 역사적 현재에 우울과 멜랑콜리의 시선을 던짐으로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상을 파괴하고, 깨어진 세계의 파편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조립하여 현재를 조명한다.

까마귀 걸어간다
노을녘
해를 향하여

우리도 걸어간다
노을녘
까마귀를 따라

결국 우리는 해를 향하여,
해 질 무렵 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해 뜰 무렵 해를 향하여 걸어갔던 이들도 있다고 한다

---

24) 허수경은 알려져 있듯이 1992년에 독일로 건너가 마르부르크대학에서 선사 고고학을 공부하고 뮌스터 대학에서 고대동방문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을 마친 뒤에도 연구원으로서 발굴과 연구를 해왔다.

25)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한길사, 2014, 153쪽.

이를테면, 나이 어려 죽은
손발 없는 속수무책의 신들이 지키는 담장 아래 살았던
아이들

단 한 번도 죄지을 기회를 갖지 않았던
아이들의 염소처럼 그렇게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날아가던 해 뜰 무렵

아이와 엉겨 있던 염소가
툭 툭 자리를 털면서
배고파, 배고파 할 때

눈 부비며 염소를 안던
아이가 염소에게 주던 마른 풀처럼
마른 풀에 맺힌 첫날 같은 햇빛처럼

-「해는 우리를 향하여」,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위의 시에서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날아가던 해 뜰 무렵"은 세계를 현상하는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 이때 "해를 향하여 걸어갔던 이들"은 "나이어려 죽은" "신들"이 지키지만 신들 조차 손발이 없는 속수무책의 신들로 드러난다. 그렇기에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아이들"과 아이와 엉겨있는 염소는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 해질 무렵 해를 향하는 반복되는 현실의 자장 안에 갇혀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해를 향하여" "우리도 걸어간다"는 화자의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환멸을 표출한다. "단 한 번도 죄지을 기회를 갖지 않았던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신조차도 "속수무책"인 현실은 세상에 대한 철저한 비애

를 드러낸다. 화자는 비극으로 얼룩진 모순된 현실을 기록한다. 세계의 폭압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슬픔 속에서 이 시의 화자가 투영하는 현실 세계는 “우리 시대의 한 표정으로 고정시키고 싶”[26]은 시인의 소명으로 읽힌다.

시인은 세계를 바라보는 비애와 좌절을 감상적으로 분출하지 않는다. 내면의 감정을 절제하여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한다. 화자는 시의 전반부인 1~3연에서 삶의 속성을 진술 한 후에 4~6연에 아이들의 현실을 밝히고 7~9연에 그날의 정황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전개한다. 화자는 아이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과 그로 인한 슬픔을 3연씩 점층적으로 전개하여 아이들이 가지는 상실과 좌절을 절제된 시의 구조 속에서 형상화 한다. 시인은 이를 통해 현실에 자리 잡아야 할 온전한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허수경의 시에 드러나는 알레고리적 세계 인식은 삶의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는 많은 것을 수집하고 배열하여 구성해 나간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 문제제기를 추동하는 실험정신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 이성적 삶의 질서가능성을 비로소 탐색할 수 있다. 알레고리는 역사적 현실과 초월적인 통합의 미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균열을 직시하는 것이다.

> 이름 없는 섬들에 살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세월이에요
>
> 이름 없는 것들이지요?
>
> 말을 못 알아들으니 죽여도 좋다고 말하던
> 어느 백인 장교의 명령 같지 않나요
> 이름 없는 세월을 나는 이렇게 정의해요

26) 「시인의 말」,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앞의 책, 3쪽.

아님, 말 못하는 것들이라 영혼이 없다고 말하던
근대 입구의 세월 속에
당신, 아직도 울고 있나요?

오늘도 콜레라가 창궐하는 도읍을 지나
신시(新市)를 짓는 장군들을 보았어요
나는 그 장군들이 이 지상에 올 때
신시의 해안에 살던
도룡뇽 새끼가 저문 눈을 껌벅거리며
달의 운석처럼 낯선 시간처럼
날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면 나는 당신이 바라보던 달걀 프라이였어요
내가 태어나 당신이 죽고
죽은 당신의 단백질과 기름으로
말하는 짐승인 내가 자라는 거지요

이거 긴 세기의 이야기지요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이야기지요

–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위의 시 1~3연에는 “이름 없는 섬들”, “이름 없는 것들”, “이름 없는 세월”이 반복되어 있다. “섬들”, “것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이름 없는 세월에 흡수될 뿐이다. “이름 없는” 이들은 모든 질적 차이를 무화시켜 이름 없는 세월에 포섭되기에 시간의 차이를 무화시킨다. 그것들은 동질적이고도 공허한 진보의 시간 개념을 포함한다. 화자의 전망은 더 이상 진

보의 시간에 닿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은 화자에게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만든다.

화자는 “죽어가는 세월”이라는 시간에 속박되어 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단백질과 기름”을 지닌 존재의 덧없음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 화자는 “내가 태어나 당신이 죽고”에서 드러나듯이 상실로 인해 침윤된 멜랑콜리적 사유로, 현실에 총체성을 부여하던 것들이 허구임을 인식한다. 이 때 알레고리는 현실의 비판적 조망을 근간으로 개인의 주관적 세계관을 예시하는 비유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27]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알레고리스트의 시선으로 세계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세계는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이야기”이다. “말하는 짐승”인 자들의 삶은 “내가 태어나 당신이 죽”는 원환의 연속이다. 죽은 자들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 또 그들로 인해 반추되는 죽음은 긴 시간의 이야기 속에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울”음 만을 남길 뿐이다. 그리하여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이라는 회한을 남긴다. 차가운 심장의 긴 이야기는 마치 현상적으로 존재하나 금방 잊혀지는 이야기 같은 것이다.

허수경의 시는 멜랑콜리적인 교착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계 상황을 알레고리로 환기한다. 삶의 누추함과 쓸쓸함을 “빌어먹을 심장”으로 알레고리화한 화자는 인간의 현실이 생각보다 쉽게 변할 수 없으며, 변한다고 해도 이 변화가 주체의 뜻대로 되기 힘들다는 환멸을 드러낸다.[28] 인간의 역사는 고통스럽고 억눌린 것들이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시간인 것이다. 시인은 이 같은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들을 마주하는 이 세계를 알레고리화 한다. 고통과 우울을 통해 현실의 삶에 결여되고 부재한 것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 세계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황폐하고 비루한 현실의 모습을 파편화된 서사를 통해 재구성하는 허수경의 시는 우리 시대를 환기하는 알레고리로 작용한다.

27) 정끝별, 앞의 책, 322-323쪽 참고.
28) 문광훈, 앞의 책, 153-154쪽 참고.

6. 결론

지금까지 허수경 시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르게 표현하거나 어떤 생각을 어떤 형태로 대체하는 비유적 표현법인 알레고리는 일 대 일 대응이라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풍부한 의미를 갖는다. 허수경의 시에 알레고리의 함의를 가진 여러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허수경은 사유 속에 자리하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시대정신을 표출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본고는 허수경 시에서 작품 바깥의 현실을 시에 도입하는 알레고리의 표상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허수경 시에서 알레고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양상은 물화된 현실에 대한 풍자적 알레고리이다. 물신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의 현실을 풍자하고 환기하는 알레고리는 현실의 삶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현대인의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현실에 대응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현실과 마주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허수경은 고립된 현실의 단편들이나 허구적 단편들을 구성하여 세계의 숨겨진 이면을 제시한다. 동물의 세계를 대상화 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심연을 품어냄으로써 숨겨진 이면에 대한 회복과 귀환에 시선이 놓이게 한다. 허수경의 시에서 알레고리는 또 한 편으로는 여성을 호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대의 노곤한 삶이 처절하게 스며들어 있는 여성은 남성중심의 은폐된 권력 구조를 알레고리화 하기도 하고 물질문명이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체로 자리할 수 없는 여성들의 모습을 핍진하게 그려내는 알레고리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허수경의 시에서 알레고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로 작용하기도 한다. 알레고리적 시선으로 현실의 무수한 관계들을 시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것이다. 허수경은 전쟁, 폭력, 죽음과 같은 문명사적 문제를 알레고리적인 방법론으로 시로 옮긴다. 폐허와 분열의 현실을 몽타주하여 이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를 알레고리화하는 섬세한 감각으로 고통스러운 일상의 조건들을 온전히 내면화하는

역량을 보여준다.

허수경의 시에서 알레고리는 시대의 진리를 적확하게 표현하여 현재를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인식하는 시간의 범주 안에서 현실의 무수한 관계들의 끊임없는 의미작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허수경은 현실에 대한 집요한 시적 탐색을 이루고 있다.

알레고리는 자발적 우울, 즉 멜랑콜리의 시선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허수경의 시에 나타나는 알레고리의 의의는 허수경 시의 멜랑콜리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될 때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허수경,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1988.
허수경, 『혼자가는 먼집』, 문학과 지성사, 1992.
허수경,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 창작과 비평사, 2001.
허수경,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 지성사, 2005.
허수경,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허수경,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 지성사, 2016.

2. 단행본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203-207쪽.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한길사, 2014. 149-159쪽.
박현수, 『시론』, 예옥, 2011. 367-370쪽.

3. 논문

김영희, 「사랑의 역사는 치욕으로 오고- 도종환, 허수경, 최승자의 시와 '아픈 몸'의 윤리」, 『창작과 비평』 40(1), 창비, 2012, 326-346쪽.

김용희, 「1990년대 여성시의 두 경향」, 『논문집』, 평택대학교, 2002, 177-188쪽.
김진수, 「서정시의 지평과 새로운 모색」, 『문학과 사회』 14(4), 문학과 지성사, 2001, 1531-1546쪽.
노용무, 「현대시의 문학적 체험과 알레고리」, 『국어문학』 39, 국어문학회, 2004, 78-95쪽.
엄경희, 「상처받은 '가이아'의 복귀- 여성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한국근대문학연구』 4(1), 한국근대문학회, 2003, 336-361쪽.
이경덕, 「Fredric Jameson의 역사주의적 상상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 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이경수, 「한사코 달아나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사랑의 노래-허수경의 시」, 『사건들2』, 《계간 파란 8》 2017 겨울, 파란, 2017, 230-260쪽.
이광호, 「그녀의 시는 오래되었으나-허수경의 오래된 편지」, 『문학과 사회』 14(2), 문학과지성사, 2001, 796-806쪽.
이은영, 「1980년대 시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재현과 부 정성」, 『한국문예비평연구』 5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205-238쪽.
이혜원, 「'나'의 자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 『서정시학』 27(4), 서정시학, 2017, 12-28쪽.
이혜원,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321-353쪽.
정끝별, 「현대시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특징과 유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306-332쪽.
정의진,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론의 역사 시학적 함의」, 『비평문학』 41, 한국비평문학회, 2011, 387-423쪽.
홍준기, 「변증법적 이미지, 알레고리적 이미지, 멜링콜리 그리고 도시- 벤야민의 미학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0(2),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08, 27-53쪽.

Abstract

The Aspect of Allegory in Heo Su-gyung's Poetry

Lee, Eun-young

Heo Su-gyung has been regarded as a lyric poet representing the 1990s and 2000s in Korean modern poetry. She portrays the pain of the times in a realistic context, completely internalizing the fragmented reality revealed by the changes of the paradigm of the times. It is noteworthy that many aspects of the poetry of Heo Su-gyung have been revealed with the implication of allegory.

Heo Su-gyung expresses the consciousness of the world and expresses the spirit of the times by embodying the abstract idea that lies in the thought. This paper focuses on the representations of allegory introducing the reality outside the works in the poems of Heo Su-gyung. This paper is a satirical allegory about the realization of important aspects related to allegory in Heo Su-gyung's poetry. The allegory, which satirizes and revitalizes the reality of capitalism, which is pervasive, effectively shapes the life of reality. In addition, objectifying the animal world brings the real world's abyss to the eyes of the recovery and return to the hidden side. In the poems of Heo Su-gyung, allegory is also made by naming women on the other hand. A woman who has a passion for the lonely life of the times allegorizes the male-centered concealed power structure. It also serves as an allegory that draws out the status of women who can not be positioned as the subject of their lives in the reality where material civilization is given

priority. In the poems of Heo Su-gyung, allegory is also a framework of recognition for the world. The allegorical gaze poetically explores the myriad relationships of reality. Heo Su-gyung continues to explore the remnant memories with images of death or ruins. Allegory is to illuminate the present by assembling fragments of the world in an unstable state. And Heo Su-gyung's poetry shows the truth of reality through the image of death and ruins.

Key words : Heo Su-gyung, Allegory, Satire, Animal figuration, Women, Death, Ruins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